

발행처 : 한국건강심리학회

발행일 : 2013년 9월 30일

발행인 : 이 민 규

인쇄일 : 2013년 9월 30일

주 소 : (660-701)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경상대학교

제작처 : 나노미디어(전화: 02-703-7507)

사회과학대학 임상/건강 심리 연구실 (151동 423호)

전 화 : 055-762-2080 팩스 : 055-772-1219

홈페이지 : <http://www.healthpsy.or.kr>

편집장 e-mail 주소 : rhoma77@paran.com

편집위원장 : 서경현(삼육대학교)

편 집 위 원 : 강성군(강원랜드) 고영건(고려대학교) 권선중(침례신학대학교)

김용희(광주대학교) 유제민(강남대학교) 장문선(경북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은 한국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건강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설을 게재하며, 건강심리학회의 공식적 학술 모임의 발표 내용과 건강심리학 분야의 국내 석·박사학위 논문 목록을 게재할 수 있다.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구독에 관해서는 한국건강심리학회로 문의하기 바란다.

Vol. 18, No. 3.

Septem. 2013.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published by

by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 per year and publishes original research articles and data. The Journal also publishes reports of the proceedings of academic meetings under the auspices of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 Psycholog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reviews on the profession of Health Psychology, and a list of M. A. theses and Ph.D. dissertation in this area. Inquiries concerning the guidelines of the subscription for the Journal and the submission of manuscripts should be sent to: Editor, Kyung-Hyun Suh,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ahmyook University, 815 Hwarangro, Nowon-gu, Seoul, Korea(E-mail : rhoma77@paran.com)

Editor : Kyung-Hyun Suh(Sahmyook University)

Associate Editor : Sung-Gun Kang(Kangwonland Addiction Care Center), Young-Gun Go(Korea University), Sun-Jung Kwon(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Yong-Hee Kim(Gwangju University), Jhe-Min You(Kangnam University), Mun-Sun Chang(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ajwa-dong,
Jinju City, Gyeongsangnam-do 660-701
KOREA

이 학술지는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한국건강심리학회 임원진

회 장 이 민 규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수석부회장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국내협력부회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국제협력부회장 김미리혜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총무이사 최 성 진 (부산메리놀병원)

교육이사 박 준 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홍보이사 이 철 호 (법무부 포항교도소)

학술이사 박 지 선 (건국대학교병원)

재무이사 장 문 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윤리위원장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편집위원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수련위원장 박 준 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선임이사 고 영 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권 선 중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 완 석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 청 송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안귀여루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 제 민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이 형 초 (인터넷꿈희망터센터)

정 경 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최 미 례 (육군사관학교 리더십센터)

최 훈 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감 사 김 정 호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고 문 손 정 락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사무국장 서 은 수 (경상대학교병원)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 18 권 제 3 호

[개관논문]

인터넷 중독 개선을 위한 인지적 접근: 조절실패와 갈망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 김 세 진 · 김 교 현 / 421

[경험논문]

수용전념치료(ACT)가 문제 음주 대학생의 문제 음주 행동, 알코올 기대 및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 조 연 정 · 손 정 략 / 445

체형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이 섭식억제자의 자존감 및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 김 지 원 · 이 장 한 / 465

영화치료가 조현병 환자의 정서인식과 표현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효과
..... 박 준 휘 · 최 성 진 · 홍 창 희 / 479

대학생 대상 자기관리 수업이 건강증진행동에 미치는 영향: 행동 유형을 중심으로
..... 양 슬 기 · 정 경 미 / 499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경계선 성격 간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 김 원 자 · 서 경 현 / 517

구제역 가축매몰 작업자의 인지적 특성과 심리적 외상 간의 관계:
인지정서조절 및 기억처리 전략
..... 이 인 혜 / 535

[Brief Report]

도박 문제 여부에 따른 암묵적 도박 태도의 차이
..... 김 덕 용 · 이 장 한 / 557

흡연 청소년의 흡연 유형 및 흡연의존 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 서 경 현 · 서 정 열 / 567

인지 기능 저하에 따른 얼굴 정서 인식의 손상 : 정상 노인과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 최 성 진 / 579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경계선 성격 간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 원 자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경계선 성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고,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경계선 성격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역할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278명(남: 111, 여: 167)의 대학생들이고, 평균 연령은 19.92($SD=1.77$)세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및 경계선 성격 수준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었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대학생의 경계선 성격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그런 관계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거부적 양육태도에서 나타났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정서적 불안정을 제외한 모든 경계선 성격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한편,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경계선 성격과 부적으로 관계하고 있었으며, 자아탄력성은 경계선 성격의 변량을 43.6%나 설명하고 있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경계선 성격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었다. 경계선 성격에 대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역할에 관해 대상관계이론과 Adler의 개인심리학 그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추후 연구의 방향과 임상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주요어: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경계선 성격, 대상관계이론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서경현,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화: 02) 3399-1676 E-mail: khsuh@syu.ac.kr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는 정체성의 혼란, 정서 불안정, 충동성, 불안정한 대인관계, 반복적인 자해 행동이 두드러진 지속적인 경험 혹은 행동 양상으로 설명되며, 후기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발현된다(Trull, Widiger, Lynam, & Costa, 2003). 경계선이란 표현은 일찍이 Stern(1938)이 처음 사용하였는데 신경증(neurosis)과 정신증(psychosis)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 정도에 있는 환자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장애는 비교적 흔한 편으로 유병률이 약 2%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여성에게서 더 자주 발병하며 자신의 삶은 물론 타인의 삶을 파괴하게 만들고 예후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경계선 성격의 두드러진 특징은 정서 불안정, 즉 신경증 경향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낮은 기능 수준이다(Clarkin & Levy, 2006). 경계선 성격장애로 진단된 사람의 93% 정도가 타인과의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될 정도이다(Barone, 2003). 경계선 성격이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기 못하게 하거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어렵게 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의 잘 기능하지 못하면서도 관계에 대한 몰입이나 집착은 심하다(Fossati, Donini, & Bagnato, 2001).

경계선 성격장애의 원인으로는 유전(Torgersen, 2000), 뇌의 이상(Chapman, & Gratz, 2007), 아동기 외상 경험(Kluft, 1990) 및 환경적 요인(Zanarini & Frankenburg, 1997) 등이 거론되고 있다. 뇌의 이상과 관련해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의 편도체가 작고 활동성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Chapman, & Gratz, 2007), 전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다(Schmahl et al., 2003). 또한 경계선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HPA 축)의 활성화로 코르티솔(cortisol) 분비가 많기 때문에, 과도한 생리적 스트레스의 반응으로 경계선 성격장애를 설명하기도 한다(Chapman, & Gratz, 2007). 그런 가운데 아동기의 학대 경험과 경계선 성격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연구로 밝혀졌다(Kluft, 1990; Quadrio, 2005). 그런 연구는 성장기에서 부정적으로 양육을 받을 경우 경계선 성격장애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Dozier, Stovall-McClough, & Albus, 1999).

경계선 성격장애로 진단을 받았거나 경계선 성격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어린 시절 가정에서 학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족을 포함한 가까운 친척의 경계선 성격장애 유병률이 일반인보다 5배 정도 높다는 것(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은 이 장애가 유전적인 영향을 받거나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한 실증 연구(김상선, 신민섭, 이훈진, 2007)에서는 경계선 성격 특성이 강한 사람의 경우 부모로부터 애정을 덜 받고 비합리적이고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성격장애의 문제는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데, 그런 문제가 어린 시절에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유아기에 어머니와 맺은 관계 경험이 경계선 성격을 가지게 한다고 설명한다(Kernberg, 1975). 생애 초기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가능성이 많은 어머니와 관계하면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나 경계선 성격이 발달

된다는 설명이다. Kernberg에 따르면 그렇게 내재화 된 대상관계가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특이한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만든다. 참고로 이상우와 장문선(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초기 대상관계 경험이 대학생의 경계선 성격의 변량을 18%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자와의 초기 대상관계 경험이 성장한 후의 경계선 성격에 의미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와의 초기 관계형성에서 아동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대상관계 경험의 원인될 수 있다. 최근 한 연구(박혜원, 손정락, 2012)에서도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의 경계선 성격과 상관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잉간섭, 방임, 학대, 일관되지 않는 양육태도 등이 경계선 성격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애정 어린 양육과 합리적 설명을 통한 양육이 경계선 성격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 대부분이 초기에 부모에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한 경험을 보고한다(Zanarini, Weingeroff, & Frankenburg, 2009). 김상선 등(200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정 부족과 방임 그리고 아버지의 학대가 경계선 성격과 상관이 있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거리감을 느끼고 배타적이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Zanarini & Frankenburg, 1997). 이상우와 장문선(2010)도 부정적 양육태도 중에 과잉간섭보다는 방임과 같은 거부적 양육태도가 경계선 성격과 더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 거부적 혹은 배타적 양육태도가 경계선 성격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부

모의 거부적인 양육이 몰입하고 집착하는 대상관계를 내재화하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Masterson(1989)은 유아기 격리 개별화(separation-individuation)의 문제가 발달 단계에서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거쳐 경계선 성격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출생 초기에 어머니로부터 애정 어린 보살핌을 못 받고 반복적으로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으면 내면의 표상이 왜곡되어 역기능적 성격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자신이나 타인, 그리고 그 관계에서 경험한 것들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지각하여 형성된 취약한 자기개념, 타인에 대한 왜곡된 지각과 그로 인한 부정 정서로 인해 제대로 된 대인관계를 맺기 어렵다. Mahler(1975)는 격리 개별화가 발달하는 시기에 유아가 경험하는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유기불안(abandonment fear)이 경계선 성격을 발달시킨다고 설명한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기불안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일 경우 자녀가 대인관계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연구로 검증된 바 있다(Arrindell et al., 1989; Parker, 1979).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아동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와도 관계가 있으며(윤세화, 권연희, 2009), 청소년기에 수치심(최창식, 조한익, 2011)을 느끼게 하여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정윤성(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거부적으로 양육 받았다고 느끼는 대학생은 더 충동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부모가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경우 자녀가 자기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중독 성향도 강

해질 수 있다(백지은, 2009). 지금까지 설명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경계선 성격과 상관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사고억제가 정서적 취약성과 경계선 성격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Rosenthal, Cheavens, Lejuez, & Lynch, 2005), 후속 연구(Sauer & Baer, 2009)에서는 두 변인 사이에서 사고억제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Sauer와 Baer(2009)의 연구에서는 좋지 못한 환경과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 간의 관계를 사고억제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실행기능이 경계선 성격장애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거절 민감성을 매개하여 경계선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기도 하였다(Ayduk et al., 2008). 또한 실제의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 간의 차이가 경계선 성격장애와 관계가 있는데 자기복합성이 그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Parker, Boldero, & Bell, 2006). 그 연구에서는 실제의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 간의 차이가 크더라도 자기복합성이 수준이 높으면 경계선 성격이 발달할 가능성이 적었다. 가정환경은 성적 학대경험과 경계선 성격장애와의 관계를 매개하기도 하는데, 불안정한 가정환경은 장애를 발달시키고 안정된 가정환경은 경계선 성격으로 발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연구로 검증된 바 있다(Bradley, Jenei, & Westen, 2005). 경계선 성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연구된 것 외에 또 다른 매개변인이나 조절변인은 없을까?

본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경계선 성격 간의 관계를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그런 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을 채택하였다. 최근 이아람과 김남재(201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복합적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 간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이 조절효과를 발휘하기도 하고,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의 충격을 완충해주는 대표적 변인이 자아탄력성이다. Block과 Kreman(1996)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불편함과 고통을 인내하고 그것에 대한 충동적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아탄력성을 정의하였다. Carver(1998)는 자아탄력성을 스트레스원이 많은 상황에서도 긍정 정서를 유지하고 부정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개인 내적 특성으로 보았다.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이미 실증적으로도 검증되었다. 특히 성장기에 좋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었거나 학대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현재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정신적 문제를 자아탄력성이 완충시켜 주거나 그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이 있다(김영희, 서경현, 2011; 김유진, 김영희, 2009; 서경현, 김성민, 2009; 서경현, 최인, 2010; 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2004; Garnezy & Sreitman, 1974).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동기에 학대를 받았거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 경계선 성격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이 그런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삶을 생동감 넘치게 하고 긍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선행연구들(Tugade, Fredrickson, & Barrett, 2004; Ong, Bergeman, Bisconti, & Wallace, 2006)에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자들은 자아탄력성이 경계선 성격의 특징인 부정

정서와 정서적 불안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은 이미 여러 번 검증된 바 있다(예: 이윤주, 신지연, 2006). 더 구체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와 적절히 의사소통하며 거부적으로 대하지 않고 친밀감을 느끼게 하면 자녀의 자아탄력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나타났다(Garmezy, 1993, Rutter, 1987). 다시 말해 부모가 자녀를 거부적으로 양육할 경우 자녀의 자아탄력성의 발달을 저해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아탄력성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한 연구(서경현, 안재순, Kim, 2012)에서는 부모의 문제에 의해 생긴 자녀의 부모화가 웰빙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자아탄력성이 조절하며 완충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진아와 신희천(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자아탄력성이 매개하여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주와 심혜원(2012)의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부모양육태도를 매개하여 빈곤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지금까지 기술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양육태도, 특히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정신건강 변인 사이에서 자아탄력성이 조절효과 혹은 매개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자아탄력성이 매개한다는 논리는 자아탄력성에 기질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어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들(이은미, 박인진, 2002)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이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아탄력성이 반드시 생래적인 것만은 아니고 습득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정 하에 개인의 웰빙 수준의 개선을 위해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정도이다(Lyubomirsky & Della Porta, 2008). 게다가 만약 자아탄력성이 생래적인 것이라도 그것이 계발되거나 억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상관이 있는지를 검증하여 상관이 없으면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의미가 있을 정도로 상관이 있으면 매개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Masten, Best, & Garmezy, 1990)은 자아탄력성이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긴 특성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런 논리는 자아탄력성이 성공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개인 내적 특성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자아탄력성이 우울이나 불안 증상과 같은 부정정서와 정적으로 상관이 있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과 정적으로 관계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Burns, 1994; Luthar, Burak, Cicchetti, & Weisz, 1997)가 그런 주장을 지지한다. 자아탄력성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충격을 받은 여성들의 긍정 정서는 물론 부정 정서와도 정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Ong et al., 2006)도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과연 자아탄력성이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경계선 성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

하고, 거부적 양육태도와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경계선 성격과 상관이 있다. 둘째,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경계선 성격과 상관이 있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경계선 성격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조절변인 혹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통해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과 경계선 성격의 하위요인들이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탐색할 것이고,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경계선 성격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혹은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한 사립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278명(남성 111명, 여성 16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만 18세에서 26세($M=19.92$, $SD=1.77$)까지 분포되어 있다. 참여자들 중에 1학년이 143명(51.4%)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105명(37.8%), 3학년이 24명(8.6%), 4학년이 6명(2.2%)이었다. 참여자들은 평균 1.21명($SD=.63$)의 형제자매를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 가족 수는 4.19명($SD=1.16$)이었다.

참여자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이 170명(62.3%), 고등학교 졸업은 95명(34.2%), 중학교

졸업은 6명(2.2%), 초등학교 졸업은 2명(0.7%) 그리고 5명(1.8%)의 학생은 아버지의 학력을 보고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이 116명(41.7%), 고등학교 졸업은 128명(46.0%), 중학교 졸업은 10명(3.6%), 초등학교 졸업은 6명(2.2%), 무학이 1명(0.4%), 그리고 17명(6.1%)의 학생은 어머니의 학력을 보고하지 않았다. 한편 부모와 6개월 이상 별거 경험이 있는 학생이 68명(24.5%)이었으며, 편부모 슬하에서 성장한 학생은 62명(22.3%)이었다.

조사 도구

거부적 부모양육태도.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Rohner(1981)의 부모수용거부 질문지(PARQ: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Questionnaire)를 바탕으로 권순명(1993)이 구성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Rohner(1981)가 개발한 부모수용거부 질문지의 60문항 중 한국문화 환경에 적합한 수용-거부 차원 30문항과 정원식의 가정환경진단검사의 자율-통제 차원 30문항을 더해 총 60문항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 척도의 문항들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거부적 양육태도 12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 1-‘전혀 다르다’, 2-‘대체로 다르다’, 3-‘대체로 그렇다’, 4-‘거의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83이고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87이었다.

자아탄력성. 참여자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CPI(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 문항 중에 Klohnen(1996)이 자아탄력성으로 구분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제 사용한 문항은 박현진(1996)이 번안한 것이다. 자아탄력성은 Block(1961/1978)이 개념화하였고 관찰을 통해 100개의 목록을 구성한 후 그 문항을 Q-sort로 평정하도록 하는 검사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이 검사를 수행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많이 소비해야 하고 다수의 평정자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Klohnen은 CPI 문항 중에 Block의 검사의 점수와 절대치 .20이상의 상관을 보이는 48개의 문항을 추출한 후 다른 성격 변인과 상관이 있는 문항을 제외하고 29문항의 척도를 구성한 후 자아탄력성을 측정하였다. 그렇게 타당화 된 총 29문항을 ‘전혀 아니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된 것이 이 척도이다. 이 척도는 자신감(9 문항), 대인관계 효율성(8 문항), 낙관적 태도(10 문항) 및 분노조절(2 문항)과 같은 네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부정 문항은 역환산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분노조절은 두 문항이기에 내적 일치도(Cronbach’s α)가 .69이었지만, 전체 문항의 경우 .91이었다.

경계선 성격. 연구 참여자의 경계선 성격 정도는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PAI-BOR)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의 성격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의 11개 임상 척도 중 하나이다. 이 질문지는 경계선 성격장애와 관련된 특징에 대해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홍상환과 김영환(1998)이 번안한 23문항을 사용하였다.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타당화 연구(홍상환,

김영환, 1998)에서는 정서통제, 부정적 관계, 정체감 문제, 기분의 안정성, 자기 손상, 양가적 관계 6요인이 확인되었다. 그 이전에 경계선 성격의 개념을 탐구한 Morey(1991)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불안정, 정체감 문제, 부정적 관계, 자기 손상과 같은 4요인으로 수렴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통제 불가능(5문항), 정서적 안정성(3문항), 충동적 소비(2문항), 부정적 관계(7문항), 정체감 문제(3문항), 공허감(2문항)과 같은 6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6요인이 전체의 변량을 약 58.7% 정도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 척도의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정서적 불안정을 묻는 3문항, 충동적 소비를 묻는 1문항, 정체감 문제를 묻는 1문항은 역환산해야 한다. Morey(1991)의 연구에서 하위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7~.91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71~.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87이었다.

조사 및 분석 절차

설문에 응답하기 전 참여자인 대학생들에게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다. 이 때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며 연구 참여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음을 알렸다. 통계분석은 IBM SPSS사의 PASW Statistics 18에 의해 실행되었고, 이 연구에서의 주요 통계분석은 Pearson 적률상관분석과 위계적(hierarchical) 회귀분석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가 278명이지만, 너무 오래 전 한 쪽 부모가 사망하여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보고하지 않는 대상자들이 있어 아버지 양육태도 관련 분석은 275명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어머니 양육태도 관련 분석은 268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결 과

거부적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및 경계선 성격 간의 관계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과 경계선 성격의 하위 요인과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자아탄력성과 경계선 성격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표 1). 상관분석 결과,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r=-.29, p<.001$)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r=-.24, p<.001$) 모두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관

계가 있었다. 거부적 부모양육태도는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경계선 성격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각각 아버지($r=.35, p<.001$)와 어머니($r=.36, p<.001$)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경계선 성격과 거의 비슷한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하위요인 중에 정서적 불안정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경계선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두 변인은 무려 43.6%정도의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더 높은 경계선 성격을 보여 두 변인 간에 부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r=-.66, p<.001$). 자아탄력성 요인 중에 분노조절과 경계선 성격의 정

표 1. 대학생이 지각한 거부적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및 경계선 성격장애의 상관행렬(N=278)

변인	부 거부적 양육태도	모 거부적 양육태도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	자아탄력성	M(SD)
자신감	-.26***	-.22***						
대인관계 효율성	-.23***	-.14*						
낙관적 태도	-.25***	-.22***						
분노조절	-.19**	-.20***						
자아탄력성	-.29***	-.24***						
정서통제 불가능	.35***	.35***	-.43***	-.28***	-.38***	-.56***	-.47***	10.37(3.42)
정서적 불안정	.04	.02	-.34***	-.20***	-.53***	-.06	-.40***	8.42(1.79)
충동적 소비	.18**	.24***	-.31***	-.16**	-.22***	-.18***	-.27***	5.00(1.62)
부정적 관계	.31***	.26***	-.56***	-.43***	-.41***	-.34***	-.55***	13.17(3.73)
정체감 문제	.21***	.26***	-.33***	-.22***	-.26***	-.38***	-.34***	7.35(1.79)
공허감	.17**	.23***	-.45***	-.34***	-.48***	-.26***	-.50***	4.89(1.60)
경계선 성격	.35***	.36***	-.64***	-.44***	-.57***	-.50***	-.66***	49.20(9.41)
M(SD)	17.30(4.64)	16.99(5.14)	33.40(6.11)	30.92(6.23)	37.37(6.61)	7.36(2.14)	109.06(17.37)	

* $p<.05$, ** $p<.01$, *** $p<.001$.

주. 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총 278명이지만, 아버지 양육태도 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275명이었고, 어머니 양육태도 분석에 포함된 표본은 268명이었다.

서적 불안정만이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며, 그 외 자아탄력성 요인과 경계선 성격 요인들 간에 부적 상관을 보였다.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대 학생의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거부적 부모양육태도(A)이 경계선 성격(C)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자아탄력성(B)이 경계선 성격(C)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A와 B의 상관이 유의하였기 때문에 중재라기보다는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이를 검증하였다. 참고로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경계선 성격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중재효과가 있는지도 검증하였지만,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에 더해 두 변인의 교차항을 투입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아 중재효과가 없었다.

먼저 대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는 검증하였다(표 2). 회귀분석에서 자아탄력성이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를 매개하여 경계선 성격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A₁

→ C)의 설명량보다 A₁, B → C에서 A₁의 추가 설명량이 7.5%로 줄었고 자아탄력성(B)의 추가 설명력도 유의하였다, β=-.63, p<.001. A₁, B → C에서의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설명량이 줄어들어도 유의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경계선 성격 사이를 자아탄력성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Baron & Kenny, 1986).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대 학생의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경계선 성격 간의 관계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지도 검증하였다(표 3).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자아탄력성이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며, 독립적으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와도 자아탄력성의 상관이 유의하였기 때문에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탄력성은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경계선 성격 사이에서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A₂ → C)의 설명량보다 A₂, B → C에서 A₂의 추가 설명량이 7.9%로 줄었고 자아탄력성(B)의 추가 설명력도 유의하였다, β=-.61,

표 2. 지각된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경계선 성격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R ²	ΔR ²	β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A ₁)	자아탄력성(B)	.087		-.29***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A ₁)	경계선 성격(C)	.125		.35***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A ₁)	경계선 성격(C)	.485	.050	.17***
자아탄력성(B)	경계선 성격(C)		.360	-.63***

***p<.001.

$p < .001$.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경계선 성격 사이도 자아탄력성이 완전매개가 아닌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경계선 성격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탐색하였고,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경계선 성격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먼저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부모 모두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지 못하고 거부적으로 양육할 경우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Garmezy, 1993, Rutter, 1987). 그런 논리는 부모가 자녀를 거부적으로 양육할 경우 자녀의 자아탄력성의 발달을 방해하거나 자아탄력성의 기능을 발휘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런 인과관계는 상관분석 결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실험연구나 종단연구로 그 관계를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경계선 성격과 정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거부적 양육태도가 경계선

성격의 변량을 12%이상 설명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부모로부터 정을 덜 느끼고 비합리적으로 양육 받았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상선 외, 2007)의 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한 연구(우상우, 장문선, 2010)에서 어린 시절의 대상관계 경험이 경계선 성격의 변량을 18%정도 설명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는 그런 경험 중에 부모의 거부적 양육이 결정적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생애 초기의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자녀의 경계선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대상관계이론(Kernberg, 1975)을 지지한다. 그런데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유아기에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맺은 관계 경험이 경계선 성격과 더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영향력과 거의 비슷하였다. 개인심리학의 창시자 Adler(1927)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하였고, 부모 중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최근 한 연구(조양선, 손술, 서경현, 2013)에서도 아버지의 양육태도나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고, 본

표 3. 지각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경계선 성격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ΔR^2	β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A_2)	자아탄력성(B)	.056		-.24***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A_2)	경계선 성격(C)	.132		.36***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A_2) 자아탄력성(B)	경계선 성격(C)	.488	.053 .356	.22*** -.61***

*** $p < .001$.

연구에서 경계선 성격에 대한 두 부모의 영향력이 비슷하였기 때문에 추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경계선 성격의 하위요인 중에 정서적 불안정을 제외한 정서통제 불가능, 충동적 소비, 부정적 대인관계, 정체감 문제 및 공허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적 불안정은 부모의 거부적 양육 외에 다른 요인이나 다른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론에서 설명하였던 격리 개별화 과정에서의 생길 수 있는 정서적 문제(Mahler, 1975)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적 불안정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경계선 성격 요인들이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정체감 문제와 상관이 있었는데, Adler(1927)도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한 자녀의 경우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부모가 거부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는 물론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가치를 느끼기 힘들기 때문에 자녀가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공허감과 상관이 있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Adler는 부모로부터 애정을 못 받고 방임된 아동은 성장해서도 타인을 믿지 못하고 건강한 사회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는데(Feist & Feist, 2008), 경계선 성격의 두르러진 특징이 대인관계 상에서의 문제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도 부모로부터 거부적으로 양육 받았을

경우 성장하여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경계선 성격 하위요인 중에 정서통제 불가능과 가장 많은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거부적으로 양육할 경우 정서통제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서통제의 문제가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경계선 성격 중에서도 정서통제 문제를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과 관련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자아탄력성은 대학생의 경계선 성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모두가 경계선 성격 요인 모두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자아탄력성은 경계선 성격과 43.6%의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다. 조양선 등(2013)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대학생의 행복감과 27.0% 정도의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자아탄력성이 긍정심리 요인보다 이상심리 요인인 경계선 성격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Garney & Sreitan, 1974; Tugade et al., 2004)에서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부적응이나 정신적 문제들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이 특히 경계선 성격에 대한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앞서 서론에서 설명하였듯이 자아탄력성과 정신건강 요인 간에 부적 관계가 발견된 연구(Burns, 1994; Luthar et al., 1997)도 있었다.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 변인과 부적 상관을 보인 것은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아져 그런 양상을 보였을 수 있다(Masten et al., 1990). 다시 말해 그런 관계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어떤 학자들(Hunter & Chandler, 1999)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부적절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데 자아탄력성이 필요하고 그 시점에서 경험하는 정신적 병리 상태와 정적 상관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 이유에서 자아탄력성과 정신건강 간의 부적 관계 혹은 정신 병리와의 정적 관계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난다(Ong et al., 2006). Egeland와 Kreutzer(1992)도 자아탄력성을 아동기의 정신적 문제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조망하였다. 자아탄력성과 정신건강 요인 간에 부적 관계가 발견된 연구들을 감안해도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상황이나 열악한 환경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경계선 성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부모가 거부적으로 양육할 경우 자아탄력성이 약해지고 그 결과 경계선 성격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계선 성격장애를 중재하고자 한다면 거부적 양육태도의 영향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성장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한 시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해진 자아탄력성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즉, 약해진 자아탄력성을 개선하여 과거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경험의 영향을 줄여야 한다. Lyubomirsky와 Della Porta(2008)는 자아탄력성을 증진시켜 웰빙 수준을 증진하고자 하였으나 경계선 성격장애에 치료를 위해서도 자아탄력성의 증진이 필요할 수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변증법적 행동치료(DBT)가 효

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Linehan et al., 1999), 그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자아탄력성에 개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어떤 학자들(김유진, 김영희, 2009; Garnezy & Sreitman, 1974)은 성장하면서 개인이 경험하는 환경 상의 부정적 영향을 자아탄력성이 완충시켜 주는 조절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환경 상의 부정적 영향, 특히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가 자아탄력성을 약화시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경계선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선행연구들(박순주, 심혜원, 2012; 장진아, 신희천, 2006)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부모양육태도를 매개하여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런 연구들의 결과와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로부터 측정된 것이 아니고 자녀로서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자아탄력성이 높을 경우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덜 지각하게 할 수 있다는 연구(박지혜, 이하나, 정현주, 이기학, 2005)도 있었는데, 실제로 자아탄력성이 과거에 노출되었던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을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기억하지 못하게 하였을 수 있다. 해석에 있어서 이런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경계선 성격에 대한 거부적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의 영향은 학문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권순명 (1993). 지각된 양육 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통제 귀인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상선, 신민섭, 이훈진 (2007).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자의 자기 및 타인 표상과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703-715.
- 김영희, 서경현 (2011). 병원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반응 및 서비스 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2), 329-345.
- 김유진, 김영희 (2009).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 123-142.
- 박순주, 심혜원 (2012).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자기조절학습이 빈곤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2), 113-135.
- 박지혜, 이하나, 정현주, 이기학 (2005).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이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영향. 2005년 한국심리학회연차학술대회논문집, 474-475.
- 박현진 (1996).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원, 손정락 (2012). 성인초기의 경계선 성격성향자의 기질,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애착.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3), 1-16.
- 백지은 (2009).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기통제 및 문제행동이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2), 111-127.
- 서경현, 김성민 (2009).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문제음주의 관계에서의 자아탄력성의 역할. 한국알코올과학지, 10(2), 33-43.
- 서경현, 안재순, Kim, G. (2012). 고등학생의 부모화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4), 1027-1043.
- 서경현, 최인 (2010). 노인환자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원, 강인성 및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2), 309-326.
- 우상우, 장문선 (2010). 초기대상관계와 경계선 성격의 관련성에서 자기개념, 방어기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453-469.
- 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 탄성력,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 효과 검증. 한국교육심리연구, 18, 393-408.
- 윤세화, 권연희 (2009).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지능과 일상적 스트레스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4(6), 253-271.
- 이아람, 김남재 (2012). 복합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특성의 관계에서 자기개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227-243.
- 이윤주, 신지연 (2006).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부적응, 부모양육태도의 관계. 사회과학논총, 5, 111-127.
- 이은미, 박인전 (2002).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관계. 가족복지학, 7(1), 3-24.
- 임현주 (2010). 정서강도,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경계선 성격 특성에 미치는 영향 : 회피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진아, 신희천 (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69-592.
- 정윤성 (200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수용-거부양육태도에 따른 대학생의 분노표현방식의 차이. 청소년상담연구, 15(1), 91-103.
- 조양선, 손솔, 서경현 (2013).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모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239-250.
- 최창식, 조환익 (2011). 청소년의 수치심경향성, 죄책감 경향성과 부모양육태도, 자기결정동기,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8(4), 29-48.
- 홍상환, 김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259-271.
- Adler, A. (1927). *Understanding Human Nature*. NY: Greenburg Pub., Inc., Translation of lectures

- by Adler in Vienna in 1926.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text revis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rrindell, W. A., Kwee, M. G. T., Methorst, G. J., Van Der Ende, J., Pole, E., & Moritz, B. J. M. (1989).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of agoraphobic and socially phobic inpatien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5*, 526-535.
- Ayduk, O., Zayas, V., Downey, G., Cole, A. B., Shoda, Y., & Mischel, W. (2008). Rejection Sensitivity and Executive Control: Joint predictors of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1), 151-168.
- Baron, R. M.,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rone(2003). Developmental protective and risk factor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 study using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5*(1), 64-77.
- Block, J. (1961). *The Q-Sort Method in Personality Assessment and Psychiatric Research*. Springfield, Illinois: C.C. Thomas. (Reprinted by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Palo Alto, California in 1978).
- Block, J., & Kreman, A. M. (1996). IQ and ego 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6-361.
- Bradley, R., Jenei, J., & Westen, D. (2005). Etiology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disentangling the contributions of intercorrelated antecedents. *Journal of Nervous & Mental Disease, 193*, 24-31.
- Burns, T. (1994). *From risk to resilience*. Dallas, TX: Marco-Polo Press.
- Carver, C. S. (1998). Resilience and thriving: Issues, models and linkages. *Journal of Social Issues, 54*, 245-266.
- Chapman, A. L., & Gratz, K. L. (2007). *The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urvival Guide: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Living with BPD*. Oakland, CA: New Harbinger Publications.
- Clarkin, J. F., & Levy, K. N. (2006). Psychotherapy for 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ocusing on the mechanisms of chang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 405-410.
- Dozier, M., Stovall-McClough, K. C., Albus, K. E. (1999).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in adulthood. In Cassidy, Jude; Shaver, Phillip R. *Handbook of attachment* (pp. 497 - 519). New York: Guilford Press.
- Egeland, B., & Kreutzer, T. (1992).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maternal stress and protective factors on the development of high risk children. In E Cummings, A Greene, K Karraker (Eds.). *Life-span perspectives on stress and coping* (pp. 61 - 83). New York: John Wiley.
- Feist, J., & Feist G. J. (2008). *Theories of Personality (7ed.)*. NY: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 Fossati, D. D., Donini, L. N., Bagnato, C. M. (2001). Temperament, Character, and Attachment Pattern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5*(5),

- 390-402.
- Garnezy, N. (1993).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In D. C. Funder, R. D. Parke, C. Tomlinson-Keesey (eds.), *Studying Lives Through Time: Approaches to Personality and Development* (pp. 377-39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arnezy, N., & Streitman, S. (1974). Children at risk: The search for antecedents to schizophrenia. Part I: Conceptual models and research methods. *Schizophrenia Bulletin*, 8, 14-90.
- Hunter, A. J., & Chandler, G. E. (1999). Adolescent resilience. *Th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1, 243-247.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67-1079.
- Kluft, R. P. (1990). Incest-Related Syndromes of Adult Psychopathology (pp. 83, 8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 Inc.
- Linehan, M. M., Schmidt, H., Dimeff, L. A., Craft, J. C., Kanter, J., Comtois, K. A. (1999).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for 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drug-dependence. *American Journal on Addiction*, 8(4), 279-292.
- Luthar, S., Burak, J., Cicchetti, D., & Weisz, J. (1997).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s on adjustments, risk, disorder*.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ubomirsky, S., & Della Porta, M. (2008). Boosting happiness, buttressing resilience: Results from cognitive and behavioral interventions. In J. W. Reich, A. J. Zautra, J. Hall (Eds.). *Handbook of adult resilience: Concepts, methods, and applications* (pp. 450-464). New York: Guilford Press.
- Mahler, M. S., Pine, F., & Bergman, A. (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Human Infant*. New York: Publisher.
- Masten, A. S., Best, K. M., & Garnezy, N. (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2, 425-444.
- Masterson, J. F. (1989). Prologue: Evolution. In J. F. Masterson & R. Klen (eds.), *Psychotherapy of the disorders of the self: The Masterson Approach*. New York: Brunner/Mazel.
- Morey, L. C. (1991).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Lutz,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Ong, A. D., Bergeman, C. S., Bisconti, T. L., & Wallace, K. A. (2006). Psychological resilience, positive emotions, and successful adaptation to stress in later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730-749.
- Parker, A. G., Boldero, J. M., & Bell, R. C. (2006).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the role of self-discrepancies and self-complexity. *Psychology & Psychotherapy*, 79, 309-321.
- Parker, G. (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a and social phobia.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 555-560.
- Quadrio, C. (2005). Axis one/Axis two: A disordered borderline.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9, A107.
- Rohner, R. P., & Rohner, E. C. (1981).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Cross-cultural coder. *Ethnology*, 20, 245-260.
- Rosenthal, M. Z., Cheavens, J. S., Lejuez, C. W., &

- Lynch, T. R. (2005). Thought suppress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affect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9), 1173-1185.
- Rutter, M. (1987).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Sauer, S. E., & Baer, R. A. (2009). Relationships between thought suppression and symptoms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23*(1), 48-61.
- Schmahl, C. G., Elzinga, B. M., Vermetten, E., Sanislow, C., McGlashan, T. H., & Bremner, J. D. (2003). Neural correlates of memories of abandonment in women with and without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iological Psychiatry, 54*(2), 142-151.
- Torgersen, S. (2000). Genetics of 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3*, 1-9.
- Trull, T.J., Widiger, T.A., Lynam, D.R., & Costa, P.T. (2003).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rom the perspective of general personality function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 193-202.
- Tugade, M. M., Fredrickson, B. L., & Barrett, L. F. (2004).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ositive emotional granularity: Examining the benefits of positive emotions on coping and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72*, 1161-1190.
- Zanarini, M. C., & Frankenburg, F. R. (1997). Pathways to the develop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1*(1), 93-104.
- Zanarini, M. C., Weingeroff, J. L., & Frankenburg, F. R. (2009). Defense mechanism associated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3*(2), 113-121.

원고접수일: 2013년 6월 12일

논문심사일: 2013년 7월 4일

게재결정일: 2013년 7월 24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3. Vol. 18, No. 3, 517 - 533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Rejective Rearing Attitude and Borderline Personality: Focus on the Role of Ego-Resiliency

Won-Ja Kim Kyung-Hyun Suh
Sahmyook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rejective rearing attitude and ego-resiliency and borderline personality, and to examine the roles of ego-resili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rejective rearing attitude and borderline personality. Participants were 278 (111 males and 167 females) college students, whose average age was 19.92($SD=1.77$). Perceived parents' rejective rearing attitude, ego-resiliency, and level of borderline personality were measured. The results revealed that perceived parents' rejective rearing attitud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ego-resiliency of college students. Parents' rejective rearing attitud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borderline personality; its relation was shown in rejective rearing attitudes of both father and mother. Parents' rejective rearing attitud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ll sub-factors of borderline personality except for emotional instability. Moreover, ego-resiliency of college student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borderline personality, and ego-resiliency accounted for around 43.6% variance of borderline personalit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ego-resiliency partially mediates parents' rejective rearing attitude and borderline personality. The influences of parents' rejective rearing attitude and the roles of ego-resiliency in borderline personality were discussed with object relations theory, Adler's individual psychology, and previous studies, and the direction for further studies and the clinical meaning of this study were recommended.

Keywords: rearing attitude, ego-resiliency, borderline personality, object relations theory